

북한이탈주민의 전환적 진로선택과정에 관한 근거이론 연구

김혜영
경기대 일반대학원 직업학과

A Study on the Grounded Theory of Transitional Career Choice Process North Korean Defects

Hye Young Kim
Department of Vocational Studies, Kyonggi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상이한 체제 즉, 사회주의 노동시장에서 자본주의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후 성공적인 직업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전환적 진로선택 과정을 탐색하는 것이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북한이탈주민의 전환적 진로선택과정은 어떠한가, 이 과정에 어떤 학습요소가 선택에 영향을 주는가? 라는 문제를 제시하였다. 현재 자신의 직업에 대한 주관적 성공감을 가지고 있으며, 경험의 과정을 풍부하고 상세하게 잘 설명할 수 있는 남성3명, 여성8명과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방법은 Strauss & corbin(1998)이 제시한 (개방코딩, 축조코딩, 선택코딩)하위범주와 범주를 관계 짓는 근거이론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결과, '관점전환'이라는 중심현상으로부터 패러다임 모형이 도출되었다. 핵심범주는 '관점을 전환하여 새로운 진로에 도전함'이었다. 전환적 진로선택 과정은 '현실인식 단계', '적극적 변화 인지단계', '지지/대처전략 단계', '성장 단계'로 시간의 흐름과 상호작용에 따른 4단계가 도출되어 진로선택 과정에서 전환학습에 따른 긍정적 반성과 계획된 우연기술의 잠재적 요소를 발견할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는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진로교육 및 진로상담을 위한 기초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This study explores the process of transitional career choice for North Korean defectors who are successfully living their lives after transition to a different system labor market. To achieve this study purpose, what is the process of transitional career choice for North Korean defectors due to the system transition? At present, he (Ed- who is he?) has a subjective sense of success in his professional life and conducted in depth interviews with three men and eight women as objects that can explain the process of experience in rich and detailed ways. To this end, the author interviewed three men and eight women who are satisfied with their current job and analyzed them with the grounded theory method proposed by Strauss & Corbin (1998). As a result, the paradigm model was derived from the central phenomenon of 'conversion of perspective', and the core category was 'conversion of perspective and challenge new career'. The transitional career choice process was derived into four stages according to the flow of time and interaction as 'reality recognition stage', 'active change recognition stage', 'support and coping strategy stage', and 'growth stage' and positive reflections from transitional learning and potential factors of planned chance skills were found.

Keywords : Career Choice, Transformative Learning, Perspective Transformation, Labor Market, Grounded Theory.

*Corresponding Author : Hye-Young Kim(Kyonggi Univ.)

email: khykgy88@naver.com

Received October 15, 2019

Accepted February 7, 2020

Revised November 18, 2018

Published February 29, 2020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북한은 국가의 계획과 통제로 개인의 직업선택에 대한 욕구와 관계없이 당에서 결정되어 내려지는 직업배치로 노동 수요를 충족하면서 실업이 없는 완전고용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1]. 국가의 인력배치 제도로 하여 자신의 진로에 대하여 예견이나 준비해야할 필요가 없이 오로지 당으로부터 내려지는 '직업 결정'에 따라 수동적인 직업 생활을 해왔던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입국자 수가 2019년 현재 3만 2천여 명을 넘어섰다[2]. 국가의 기근과 재난에 의해 국적을 포기하고 자신의 생존권과 인권을 지키고자 스스로 남한사회로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이주자 성격으로 볼 수 있다[3]. 이주민들이[4] 모국의 문화와 정착지의 문화 사이에서 모국의 문화를 유지하면서 정착지의 문화를 동시에 받아들이는 경우 통합유형[5]이라고 하는데, 이주민의 경제적 적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직업 활동을 위한 개인적 특성, 정착지의 사회적 상황 및 노동 시장 현황, 그리고 정착지원 프로그램이 중요하다고 여겨지고 있다[6].

일반적으로 진로(career)는 학령기를 중심으로 나뉘는 인식이 지배적이고, 성인의 진로전환은 직업을 구분하여 사용하며 대부분은 노동이동에서 시작하여 직장이동을 거쳐 직업이동[7]으로 나타난다.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에서 새로운 직업을 선택하는 과정들은 직장이동이나 직업이동의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다.

성인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직업훈련 효과성 및 개선 방안연구[8], 북한이탈주민들의 북한에서의 직업경험, 인적자본, 직무능력이 남한 노동시장 고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9]것, 탈북여성들이 남한 노동시장 진입에서 지각하는 진로장벽에 관한 척도 개발[10],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정책 개선방안[11]을 비롯한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자립의지를 높여주고, 기회제공의 지원을 제시하는 선행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그들이 진로선택 과정에서의 진로성숙 및 경력개발의 계기를 만들기 위한 미시적 차원의 행동 과정에 대한 접근을 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진로전환 과정에서 빠르게 새로운 상황으로 전환하는가 하면 힘든 상황으로 빠져드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동일한 위기 상황에서도 대처와 적응에는 개인차가 있음을 의미한다[12].

북한이탈주민의 취·창업에 관한 정책적 측면에 관한 연구들에 이어 학술적 측면, 실무적 측면의 기초적인 탐색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북한이탈주민들이 자신의 진

로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인 행위자로서의 본질과 영향요인을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연구결과를 얻고자 한다. 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취·창업의 성공률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되는 맞춤형 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상담기법에 기초가 될 자료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새로운 정착지에서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직업행동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요인이나 관계를 찾고자 한다.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이 자본주의 노동시장에서 진로성숙 및 경력개발 계기를 만들기 위한 핵심요인 즉, 개인적 특성과 내·외적인 행동요인들이 모두 연결되는 경로를 설명하는 실체적 이론을 개발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북한이탈주민들이 자본주의 노동시장에 진입하면서 어떤 사고와 행동변화가 있었는지 단계적인 과정을 발견하여 이를 이론화 하고, 추상적인 이해를 제공하고자 근거이론[13] 방법으로 접근하였다. 근거이론은 사회 집단 내의 변화를 기록할 뿐만 아니라 그 변화의 중심적인 과정에 대한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진로선택과정에 대하여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요인이나 요인들 관계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해 질적 연구 방법인 근거이론방법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연구 모형은 <Fig.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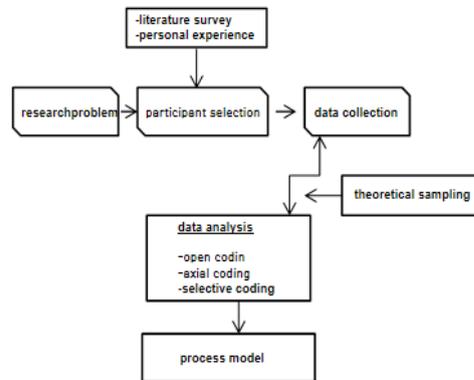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2.2 연구 참여자 선정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대표성 확보 보다 연구자가 연구하고자 하는 주제에 풍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9] 이론적 표본 추출 방법을 활용하였다. 전국 지역 하나센터에서 근무 중인 전문상담사들에게서 추천받은 연구 참여자들에게 본 연구에 대한 목적과 방법, 자발적 참여, 면담내용을 녹음할 것과 2차면담 가능성과 연구자료 비밀유지, 익명처리, 연구용도의 사용금지, 녹음테이프 보관 기간 등 자세한 설명 후 연구 참여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다.

질적 연구의 핵심은 정보를 일반화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현상이나 구체적인 사실을 명료하게 드러내는 것이다[14]. 연구 참여자들이 자신이 현재 종사하고 있는 직업에 만족하고 있으며 경험의 과정을 더 쉽고 풍부하고 상세하게 표현할 수 있는 대상으로 의도적 표본추출 방법을 선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근거이론에서의 자료 포화 원칙에 근거하여 연구 참여자는 남한 입국 후 직업에 2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남성3명, 여성8명으로 최대한 진로선택 과정의 경험들에 대한 깊이와 질에 초점을 맞추기 위한 노력 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Table 1> 와 같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Research Participants

Div	Gender	Age	Edu	Entry year	Job in North Kor	Present job	Wor-year
p1	Female	49	H-Sch	2011	Plasterer	Self employment	2
p2	Female	51	H-Sch	2013	artist	Nurse	3
p3	Female	44	Univ	2013	Inoccupation	Insurance agent	3
p4	Male	45	H-Sch	2008	Manufacturing Worker	Self employment	3
p5	Female	44	Univ	2013	Inoccupation	Accountant	2
p6	Female	49	Univ	2007	Seller	Social Worker	2
p7	Male	32	Master	1999	Student	Programmer	3
p8	Female	49	Doctor	2003	Seller	Counselor	8
p9	Female	42	Master	2007	technician	Official	5
p10	Female	43	Univ	2009	Accountant	Counselor	3
p11	Male	44	H-Sch	2007	Driver	Self employment	5

2.3 자료수집과 분석 및 평가

자료는 현재 직업을 가지고 있고 직업생활에서 주관적 만족을 나타내고 있는 참여자들을 20명 추천 받았다. 1차 전화작업을 통하여 약 2시간 정도의 인터뷰가 가능

한지와 남한 노동시장에 진입 후 여러 차례 직업전환이 있더라도 현재 자신의 진로선택에 대하여 주관적 만족감을 가지고 있는 참여자를 11명 선정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7년 2월초부터 2017년 5월말까지 1인 2~3회 심층면담 및 전화작업이 진행하였고, 1차 심층면담에서는 2시간, 2차로 심층면담은 부족한 내용들에 대한 보충 방식으로 30분, 3차 전화면담에서는 내담자로부터 내용확인을 위해 30분에 걸쳐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인터뷰 질문은 개방적이고 비구조화 된 질문방식을 사용 하였다. ‘현재 직업을 갖게 된 과정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하위 질문으로는 ‘진로를 선택하면서 경험한 것은 무엇 입니까?’이었다. 면담과정에 연구 참여자의 비언어적 반응과 태도, 분위기 등 특징은 꼼꼼히 메모나 현장일지로 기록하여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녹취된 자료는 연구자가 직접 전사한 후[15] 이론적 코딩(theoretical coding)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행된 분석의 결과는 더 이상 새로운 범주나 이론이 나타나지 않는 이론적 포화에 이를 때까지 진행하였다.

질적 연구방법의 평가 기준으로 타당도, 신뢰성, 이론의 생성, 정교화, 과정의 적합성, 연구결과의 경험적 근거에 대한 판정, 더 나아가 연구자의 자료 분석 능력, 이론적 민감성 상호작용의 미묘함에 대한 글쓰기 능력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13].

질적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16] 바로 연구의 엄격성으로 실증적인 근거, 일반화 가능성, 편견의 최소화를 추구하는 과학적인 방법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17] 신빙성, 재연 가능성, 감사 가능성, 확인 기능성의 4가지 평가기준을 준수하고자 하였다.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들과의 충분한 라포형성으로 신뢰 관계를 구축하여 진실 되고 풍부한 인터뷰 진행 후 질적 연구 경험이 있는 직업학 박사, 지도교수들의 자문을 받아 연구자의 주관적인 선입견, 가치, 신념 등을 배제시키고 타당성이 높은 연구결과를 얻고자 하였다. 연구자가 수집한 자료들에서 드러나는 의미발견과 분석 후 이론을 도출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녀야 한다[15].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연구자는 북한이탈주민 상담 5년차로 연구 참여자들의 역량이나 독특한 북한 사투리 인터뷰 내용을 전사하는데 정확도를 높일 수 있었고, 자료들에서 드러나는 의미에 대한 분석과 발견, 개인적인 선입견이나 편견배제를 위해 노력하였다.

3. 연구결과

3.1 개방코딩(open coding)결과

심층면담을 통하여 얻은 자료를 개념화하 위해 줄 단위로 지속적인 비교분석을 통하여 의미의 단위마다 개념을 명명하고, 유사한 개념끼리 묶어 좀 더 추상화하여 범주화 시키는 작업을 하였다. 이 범주의 속성과 차원에 따라 계속 발전시켜나가는 개방코딩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113개의 개념과 34개의 하위범주, 그리고 13개의 범주가 도출되었고 이는<Table 2>와 같다.

Table 2. open coding

subcategory	Category	Paradigm
vague career expectation	the immediate career problem	causality condition
uncertain information		
career choice experience absence		
directly in reality	change in viewpoint	central phenomenon
a barrier to overcome		
Overcoming the inferiority complex	experiential learning	contextual conditions
trial and error		
interest aptitude discovery	perceived opportunity	mediated condition
strong point discovery		
Coincident element discovery	potential capacity	mediated condition
challenge to uncertainty		
novelty pursuit		
continuous effort		
flexibility for the situation	decision making	interaction
optimism about opportunity		
judgmental power	new learning	interaction
information gathering technique		
interpersonal relationship change	self-control	interaction
Self-awareness change attempts		
desperation	perceived support system	interaction
influence from the important others		
social support		
religious belief	success experience	interaction
success in employment		
recognized ability	internal growth	result
experience-accumulated competitiveness		
change of attitude toward life	career maintenance	result
career confidence		
Volunteer activity	career extension	result
creative problem solving		
job satisfaction	career extension	result
human resource accumulation		
career expectation		
commitment to change		

3.1.1 인과적 조건

인과적 조건은 어떤 현상이 발생하도록 영향을 미치거나 이끄는 사건으로 본 연구에서는 ‘당면하는 진로문제’로 도출되었다.

사회 나오면 막연히 다 되어있고, 그냥 직업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현실이랑 너무나 다른 거예요.(참여자 7)

하나원에서 나올 때는 한국 사회를 모르니까. 자본주의 사회는 오직 돈이 최고 돈을 열심히 벌어야지. (참여자 6)

너무 방황하니까. 대체 나한테 맞는 직업이 뭔지.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근본 모르는 거예요. 적성검사 해도 모르는 거예요. (참여자 3)

나는 일해야 되니까. 가정이 있고, 애도 있고, 일을 안 할 수가 없는데, 내가 중국에서 10년 동안 배웠던 중국어를 살리고 싶어...이제 고민 했었을 때, (참여자 9)

3.1.2 중심현상

중심현상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건의 성격과 종류로 그 과정에 무엇이 진행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데 본 연구에서는 ‘관점 전환’으로 도출되었다.

아들 한테는 저녁에 같이 있어야 하고 저녁에 5시간에 퇴근하는 것을 고르다 나니까, 거기를 들어갔어요. 그럼 더 노력해야지, 포기하면 안 되죠. 내가 모든 게 부족해서 이렇구나! (참여자 1)

그리고 나서 좀 더 생각을 하니깐 내말을 녹음해봐야 되겠다. 하고 생각했어요. 녹음을 해보니까 야! 욕을 먹을 만하네~ 그래서 이렇게 볼펜을 입에 물고 연습을 하고...(참여자 10)

...요청을 받았지만은 가서 실지 견적을 내려가게 되면 역량문제 라든가 사투리가 있으니까 이상한 눈으로 볼 때도 있었고, 앞에서는 일을 주겠다고 놓고는 돌아서서는 전화 한통도 없고... 그래서 참, 편견이 많구나... 그럼 열심히 하지 않았던가, 아니면, 거기에 자기가 좋아하는 직업이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것 같아요. (참여자 4)

나는 일해야 되니까. 가정이 있고, 애도 있고, 일을 안 할 수가 없는데...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 고민 했었을 때... 한국 사람들은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할 거야 중국어를, 그런데 나는 어차피 중국에서 10년을 살았어. 그런 자신감이 생기는 것이예요.(참여자 9)

3.1.3 맥락적 조건

맥락적 조건은 중심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나 조건으로 작용·상호작용전략을 조절하고 수행하기 위해 취해지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경험학습’, ‘지각된 기회’로 도출되었다.

내가 요리를 잘하던 못하던 간에...내가 요리를 하고 싶었고 ...내가 만든 거 먹이고 싶었고,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내가 요리 쪽에 끼고 있구나.(참여자 1)

나는 이일을 하면서 내 천직이구나! 내가 사람들 상담을 하다보면 너무 신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 가지를 하면서 달려온 거야. (참여자 9)

그런 거 즐겨 하다나니까. 재미로 시작하였는데, 1년이 지나니까 재미보다도 이것으로 성공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참여자 4)

제가 중국에서 생활을 오래 하였는데, 중국에서 한국음식을 많이 해서 팔았어요. 음식에 대한 것을 하면 내가 조금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참여자 9)

그게 나는 우연적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식당에서 일할 때 갑자기 내가 그때 아, 내가 남 밑에서 일 하는 게 아니고 내 식당을 차려야겠다. 그날 마침 우리 신랑이 가게가 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참여자 1)

3.1.4 중재적 조건

중재적 조건은 중심현상에 대한 광범위하고 구체적인 상황 요인으로 작용·상호작용전략을 조정하거나 강요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잠재적 역량’, ‘의사결정’으로 도출되었다.

내가 참 담도 커요. 근데, 내가 쪽~생활을 해놓고 보면요, 사람이 모든 일은 저질러 놓고 봐야 해요. 맞아요! 저질러 놓고 봐요..... 그래서 아 이거 내가 무조건 잡아야겠다! 그다음은 내 실력인데, (참여자 1)

나는 무조건 해야 돼. 무조건 여기에 취업을 해야 되고 무조건 내가 선택을 한 것에 대해 끝까지 해야 돼. 다시 도전을 해야 돼요... 가을에 또 보고 자격증 취득할 때까지는 또 도전해야 되겠다고 그랬어. (참여자 2)

세상에 이걸 놓치면 바보가 되는 것 같더라 구. 그래서 무조건 갔는데, 내가 그때가 마흔 네 살 이었나? 내가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야. (참여자 6)

고용센터에 들어와 일을 해보니까 이 자격증이 있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자격증이 필요 한 게 아니라 나를 증명하고 서류를 제출하자면 자격증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2013년도에 자격증을 취득했어요. (참여자 10)

저는 5년 앞도 내다 볼 수가 없어요. 제가 계획하고 있는 거 하고 진짜 5년 후에는 어떻게 변할지 그거는 장담할 수 없죠. 저는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지만, 더 좋은 직업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배우는 게 저한테는 나쁜 아니니까. (참여자 5)

나 앞으로 내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의미 없이 살았다면 앞으로의 삶을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삶의 목표를 정하다보니까. 목표를 정하고 그 방향으로 달리다 보니까. (참여자 11)

지금하고 있는 일을 꾸준하게 할 수 있다고 장담은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내일은 내일을 봐야 아니까. 사람이 그 수많은 변수를 겪고 나니까 앞으로 어떻게 된다고 장담은 못하겠고, 현재는 매일 하루하루 삶에 순간순간 주어진 때 최선을 다하자.(참여자 3)

3.1.5 작용·상호작용 전략

작용·상호작용 전략은 중심현상에 대처하거나 다루기 위해 취해지는 고의적이면서 의도적인 행동을 타나내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학습’, ‘자기통제’, ‘지각된 지지체계’, ‘성공경험’으로 도출되었다.

그러면서 사실 그전에 “이거 어떻게 해?” 이거는 내가 당연히 나한테 가르쳐 주어야 돼! 이런 태도로 물어봤었는데. “어머 ~이거 내가 하려고 하는데 잘 안되네! 어떻게 해?” 내가 모르겠으니까 좀 도와줘... 이런 식으로 바뀐 것 같아요.(참여자 9)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어요...그게 스트레스로 느끼고 할 때에는, 나한테 하는 그 욕이라던가, 행동 그거는 마음이 안 아파요. 왜 그런가 하면 나한테 투정 이겠구나! 어디가 해 볼 데가 없으니까 그 얘기를 들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참여자 10)

북한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지? 궁금하기 시작하거든요.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거에 대해서 처음으로 궁금했어요. 앞만 보고 달리다가 처음으로 주변을 돌아보게 된 거예요. 아~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지? (참여자 8)

내가 진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이거 정말 포기해야 하나, 그냥 해야 하나? 내가 여기서 포기하지 말자. 내가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되지. 우리가 솔직한 말투는 죽음을 각오하고 넘어온 사람들인데, (참여자 1)

... 왜냐하면 여기가 첫 회사이고 내가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취직한 자리잖아 그래서 떠나고 싶지는 않아. 아무데 가나 같아요. 누가 그저 먹여주지는 않잖아. (참여자 2)

...거기에 가서 다른 분들이랑 소통을 하다보니까, 아! 내가 지금 좋은 조건에서 일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일하면서 공부를 하고 감사하다는 생각은 못해 봤거든요. 내가 좋은 조건에서 일을 한다는 생각은 못해 보았고, (참여자 9)

3.1.6 결과

결과는 어떤 현상에 어떤 현상을 다루고 대처하기 위하여 취해진 상호작용 전략에 따라 나타나는 결과물로 본 연구에서는 '내적성장', '진로유지', '진로 정글짐'으로 도출되었다.

공부를 잘해서 대학에도 가고 취직도 해야겠지만, 제일 중요한건... 인성이라고 생각해요. 인성을 떼놓고 좋은 대학 나오면 뭘 해요? 인성과 함께 성장 하는 것 이라고 생각해요. (참여자 4)

...참, 그런 면에서 저는 행복이라는 가치관을 내세우면서 이 행복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갈등에서 발생하는 거다! 그래서 감성은 진짜 사막에 버려진 존재 처럼 쓸쓸하고 그래서 내가 여기서 뭔가 나의 개발을 해야 된다! (참여자 7)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중요한 진로는 중국어로 나가기로 하였지만, 지금 중국에서 막 사드 때문에 그렇고, 꼭 이 길이 아니더라도 다른 길도 택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우연한 일들이 진로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해요. (참여자 5).

더 전문적이고 많은 사례를 통해서 역량을 강화시켜서 나만의 탈 북민 관련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준비하고 있지... 이 현실을 내가 어떻게 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참여자 6)

저는 대학 졸업하자마자 바로 취업을 한 것이 아니라 인도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였고 그것이 경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그리고 나서 사회를 나오면서 뭔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데, (참여자 7)

그 사람 맛으로 되지 내 맛이 안 되더라 구요. 또 그 사람 나간다음에는 내 맛으로 돌리려면 더 힘들고, 그래서 처음부터, 처음부터 맛있든 맛이 없든, 내손으로 길들인다. (참여자 1)

그래서 우리 사람들에 대한 봉사단체를 만들어야 되겠다. 우리가 우리서로 도우면서 어울리면서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군포시에서 서로 마음을 모아서 "성화 봉사단"이라는 것을 2015년부터 만들었어요. (참여자 9)

공부가 힘든데, 해보니까 너무 좋더라. 해보니까 당당하고, 그리고 아침에 출근해야 되는 그 직장이 나를 반기는 사람들이 많잖아. 가슴이 막 뛰잖아. 대한민국에 와서 나도 직업이 있구나! 우리사람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참여자 2)

3.2 축코딩(axial coding)결과

3.2.1 패러다임에 의한 범주분석

개방코딩에서 발견된 13개의 범주들 중 중심현상을 파악하고 이 범주가 어떻게 다른 범주들과 연결 되는지 밝혀지면서[15] 속성과 차원에 따라 지속적으로 비교 발전시켜 '무엇이, 어떻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라는 질문의 답을 얻고자 조직화된 도식(organizing scheme)의 구성 요소별로 묶었다. 본 연구에서는 '관점전환'이라는 중심현상에 원인 즉, 인과적 조건으로 남한에 입국하면서 막연하게 가졌던 진로기대, 전무한 진로선택 경험과 불확실한 정보로 인하여 연구 참여자들이 겪게 되는 혼란스러운 딜레마이며 스트레스 사건인 '당면하는 진로문제'였다. 이러한 '당면한 진로문제'로 연구 참여자들의 전환적 진로선택 과정에 나타나는 중심현상은 '관점전환'이었다. 무 경력에 진로자본이 전혀 없는 이들은 현실을 직시하고 수많은 진로장벽에 부딪치는데, 가장 어려운 것은 역양과 사투리 때문에 오는 편견, 적대감 이질감을 감지하지만 자신들의 행동방향을 새롭게 수정하고자 노력한다. 이러한 '관점전환'은 맥락적 조건인 '경험학습'이나 '지각된 기회'에 의하여 조절 된다. 남한의 노동시장에서 여러 차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자신의 흥미·적성이나 감정을 발견하고 우연적인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삶 전체에 긍정적으로 연결하는 경험을 하였다. '관점전환' 중심현상에 중재적 조건인 '잠재적 역량'과 '의사결정'은 광범위한 상황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조정한다. 연구 참여자들은 기회라고 생각되면 불확실성에도 도전하였고 새로움을 추구하였으며, 진로목표를 향한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기회에 대한 낙관, 상황에 대한 유연성을 나타내고 있었다. '새로운 학습', '자기통제', '지각된 지지체계', '성공경험'에 중재적 조건인 '잠재적 역량' '의사결정'은 '관점전환' 현상을 다루고 대처하기 위해 의도적이고 고의적인 작용·상호작용 전략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남한 입국 후 정보수집 기술, 대인관계 변화를 통한 새로운 학습을 추구하였고, 자기통제, 사회적 지지 체계, 성공경험을 통하여 비판적 성찰이 일어나고 있었다. 이러한 작용·상호작용 전략으로 얻어진 결과는 자신의 삶에 대한 의미를 서서히 찾게 되고 남한사회에서 자신의 진로에 대한 자신감이 높아짐과 함께 봉사활동을 통한 '내적성장'과 수동적이고 의존적이었던 고정관념을 버리고 창의적인 문제해결능력이 가지고 자신의 직업에 만족하고 있는 '진로유지', 예측 불가능한 미래 직업사회를 맞이하는 준비도 게을리 하지 않으며 인적자본을 축적하고 변화에 진로기대 역시 나타났다. 축코딩 절차 [13]에 따른 패러다임 모형은 <Fig. 2>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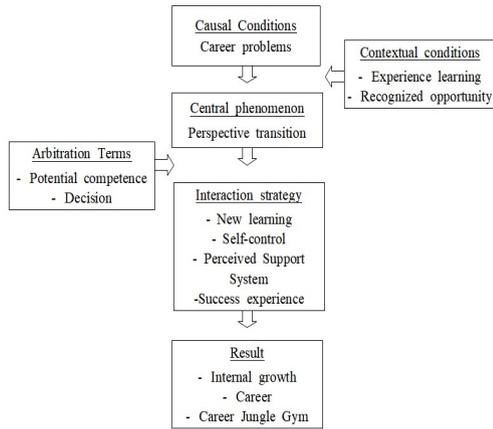


Fig. 2. Paradigm for Career Selection Process

3.2.2 과정분석

패러다임 모형[18]에서 「현상」으로부터 나타나는 반응과 대처, 「작용/상호작용」 전략의 연속적인 연결에 따라 작용/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과 상황변화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현실인식 단계', '적극적 변화 단계', '지지·대체전략 단계', '성장 단계'로 4단계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상호작용에 따른 행동변화 즉, 전환적 진로선택 과정은 <Fig. 3>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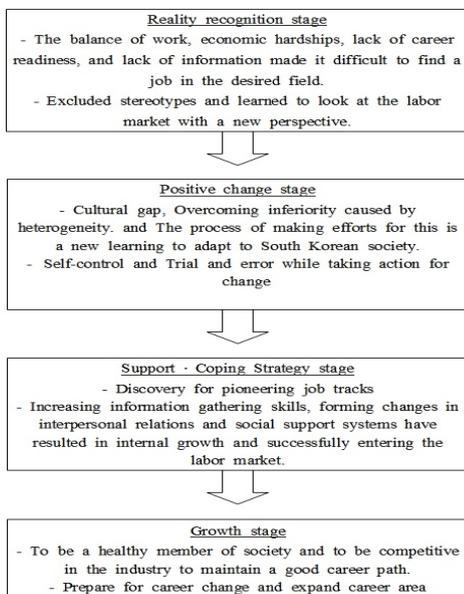


Fig. 3. Transitional Career Selection Process

3.2.2.1 현실인식 단계

연구 참여자들에게는 노동시장 이행과정에서 일·가정 양립, 진로준비 부족, 정보부재, 인적자본 부족 등으로 진로장벽을 지각하게 되고 교육, 취업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스트레스였다고 할 수 있다. 사회주의 체제에서 수동적이고 의존적이었던 연구 참여자들이 무작정 돈벌이 의미의 노동시장 진입에서 직장(조직)문화, 직무수행 등에서 혼란스러운 딜레마 상황에 처하였고, 취업이 쉽지 않다는 현실을 인식함과 함께 고정관념을 배타하고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자본주의 노동시장을 바라보아야 함을 인지하게 된다. 그로부터 반성적 사고가 일어나는 단계를 연구자는 '현실인식 단계'로 상정하였다.

3.2.2.2 적극적 변화 단계

노동시장 진입 후 겪게 되는 문화격차로 인한 갈등과 주변의 시선과 편견, 부 정확한 정보로 야기되는 오류 등으로 시행착오를 겪지만, 새로운 이해와 기존의 자신과 현재의 자신의 신념을 비교하고, 충돌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에서 지금까지 생애사건들을 '경험학습'으로 받아들이고 자본주의 노동시장 가운데 자신의 강점을 발견한다. 새로움에 대한 추구, 불확실성에 도전, 기회에 대한 낙관을 보여주면서 일상에서 우연하게 일어나는 사건을 적극적으로 유리하게 만들어 진로를 찾게 되는 단계를 연구자는 '적극적 변화 단계'로 상정하였다.

3.2.2.3 지지·대체전략 단계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이 주체가 되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한 진로에 대하여 동기부여와 책임감으로 부터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나 현상들 속에서 성숙한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자신의 경력개발을 위해 관리하고 변화무쌍하고 고도화된 노동시장에서 대처하기 위해 사회연결망 형성, 정보수집 기술, 대인관계 변화를 통한 새로운 학습을 추구하였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고 계획하였으며 목표 실현 과정에 자기통제, 사회적 지지 체계, 성공경험을 통한 진로 재통합을 나타내는 단계를 연구자는 '지지·대체전략 단계'로 상정하였다.

3.2.2.4 성장단계

연구 참여자들은 전환적 진로선택과정에서 관점 전환을 통해 새로운 진로세계를 담당하게 마주하게 된다. 이러한 의미시각에 대한 변화는 주동적인 선택과 결정을 하도록 하고 또 다른 삶에 대한 끊임없는 선택과 결정에 대한 올바른 선택을 위한 통찰력을 가지도록 한다. 사회

적으로 건강하고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단계를 연구자는 '성장단계'로 상정하였다.

3.3 선택코딩(selective coding)결과

3.3.1 핵심범주

핵심 범주는 연구의 중심 주제를 대변하기에 핵심범주가 모든 범주와 연관이 있어야 하고 자료에 반드시 자주 나타나야 하며 범주를 연결시키면서 발전하게 되는 설명은 논리적이고 일관성이 있어야한다[9].본 연구의 핵심 범주는 '관점전환으로 새로운 진로에 도전함'이다.

남한 초기 정착시기 연구 참여자들이 가장 어려움 호소하는 것은 자신에 대한 진로문제였고, 진로에 대한 불안감은 위축감과 자괴지심 열등감으로 이어지는 이는 획기적인 딜레마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할 수 없는 노동시장 현실 안에서 스스로 자신을 발견하고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반성하는 '관점전환' 중심현상이 일어난다. 습관적인 기대(expectation)의 구조를 변화하여 남한의 노동시장, 나아가서 직업세계에 대한 통합적인 시각을 가져오면서 자기 계발과 함께 자존감이 향상되었다. 자신에 대한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와 함께 삶의 가치와 태도가 바뀌는 것도 발견하게 되는데, 변화를 인지할수록 성취가 일어나고 견해를 확장하고 발전할수록 기회를 감지하게 되었으며 이들은 위험감수를 하면서 도전하는 정신력을 보여 주었다. 이 과정에서 스트레스 대처 방법이 생기고 이런 도전 정신은 또다시 해결책을 가져올 수 있는 창의성과 대안을 불러왔으며, 이들은 다시는 진로세계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변화를 가져오고 도전 할 것이라는 것이 핵심범주에서 나타나고 있다.

3.3.2 이야기 윤곽

이야기 윤곽은 원 자료(Raw Data)에서 도출한 핵심 범주를 다른 범주들과 연결[18]하고 관련성을 서술하는 과정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남한입국 후 생애 처음으로 자신이 스스로 진로를 선택 하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고도화된 노동시장에 면서 두려움과 답답함을 느낀다. 이들에게 있는 직업정보란 하나원에서 사회적응기간(3개월)에 받은 직업훈련 과정(컴퓨터 기초능력, 경리, 전산회계, 요양보호사, 요리사, 네일아트 등) 일반 무료국비지원 [19] 으로 국한 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남한사회에 편입되면서부터 진로고민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을 감당해야 자신의 흥미나 적성에 대한 고려는 관심이 없었다고 한다. 북한에서의 생활에서 가졌던 직업은

'무리집단배치' 라는 임의적 직업배치로 직업생활을 한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직업경력은 무의미 하였다. 노동시장에 주체가 되어 본적이 없는 이들에게 취업문턱은 높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편견과 선입견, 무시나 자신들 스스로 상향비교를 하게 되고 열등감을 느끼게 되었다. 처음부터 남한의 노동시장에 맞춘 진로준비가 부재하였던 이들은 단순노무직으로 선 취업 후 직장문화와 직무에 대한 스트레스나 열등감으로 충격을 받는다. 정착 초기의 직장문화 충격과 열등감이 그들에게는 자구제, 촉진제가 되어 새로운 눈으로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면서 발견과 변화라는 도전으로 이끌었다. 이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관점을 전환해야 함을 인지하고 자신을 변화시키면서 개인의 역량을 찾아내고 준비한다. 남한 사회에서는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는 마음을 가졌고, 기존의 생활방식을 버리고 중국 체류 당시 자신의 적응력을 강점으로 보면서 노동시장 한 가운데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기 시작하였다. 눈높이를 낮추고 현실을 직시하기 시작하면서 기회는 찾아오고 도전하고 부딪치고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다. 도전은 취업성공의 문을 열 수 있게 하였고 첫 성공 경험은 자신감을 가져다주면서 점차 노동시장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해소된다. 그들은 노동시장을 파악하기 위해 직업정보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아울러 대인관계 변화와 인적, 물적 네트워크 형성에서도 변화가 나타났다.

몇 차례의 시행착오를 할 때 마다 긍정적인 반성과 실패는 좌절이 아니라 경험학습으로 이어지고 이러한 결과는 취업활로를 개척하는 중요한 기회로 이어진다. 선 취업을 통하여 일을 하면서 느끼는 희열과 즐거움으로 자신의 적성을 찾아내고 흥미가 있으니 일을 통하여 창의적이고 독창적이 되었다. 변화하는 노동시장에서의 직업안정성을 가지기 위해 실력·인맥·자기관리라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게 된다. 인적 자본 축적을 위하여 일과 학습을 병행하였으며 어떤 상황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유연성을 키우면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을 부단히 계획하고 준비하고, 실천하는 모습을 보면서 조직에서 타인에게서 응원과 격려, 인정을 받으면서 이들은 스스로 삶의 태도를 확인하게 되고 강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자신과 공동체 발전을 위해 성실하게 일하는 능동적인 사회인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경력개발 과정은 자격증, 학위 등을 취득하면서 남한의 노동시장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을 제거하였고 당당하게 노동시장에 안정적으로 자리매김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근거이론방법으로 113개의 개념과 34개의 하위범주, 13개의 범주를 찾아냈다. 찾아낸 범주들을 패러다임 모형을 통해 조합하는 과정을 거쳐 패러다임 모형에 따라 범주간의 구체적인 관계를 알아보고 '무엇이, 어떻게, 왜' 일어났는지를 밝힐 수 있었다. 체제전환이라는 전환적 국면의 진로선택과정에서 혼란스러운 딜레마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 이는[20] 입국초기 경제적 안정에 대한 갈망에 이어 생존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낀다고 이야기한 내용을 뒷받침해준다. 연구 참여자들은 자본주의 노동시장에 대한 관점전환은 이들의 향후 진로성숙과 경력개발로 이끈다는 것을 경험하였다. 관점전환에는 불확실성에 도전하고자함, 새로움을 추구하고자함, 기회에 대한 낙관의 유무, 지속적인 노력하고자함, 판단력 유무가 중재적 조건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조건은[17]이 주장한 우연기술의 내적 특성과 유사하다. 진로선택 과정에서 기회의 역할에 대하여 주목[21]하면서 계획된 우연이론을 제시하였다. "계획된 우연기술"은 개인의 내적특성으로 호기심(curiosity), 인내심(persistence), 낙관성(optimism), 유연성(flexibility), 위험감수(risk taking)가 제안되었다[21]. 개인의 노력에 따라 예기치 않은 사건이 진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경우로, 이는 남한 자본주의 노동시장에 대한 '관점전환'을 일으키도록 우연기술이 중재적 역할을 하였음을 설명이 수 있었다. [22]에서는 전환학습에 대하여 새로운 관점을 실제 실천하도록 하는 행동으로 언급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또한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관점전환 후 새로운 관점을 실제 실천하도록 하는 행동이 나타났는데 이는[22]에서 언급한 전환학습 3가지 단계에 해당된다.

본 연구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전환적 진로선택과정 분석 결과 '현실인식 단계', '적극적 변화단계', '지지·대처전략 단계', '성장단계'로 정리 되었다. '현실인식 단계'에서는 진로에 수동적이고 의존적이었던 연구 참여자들이 새로운 정착지에서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노동시장에 진입하지만 상이한 직장 문화와 사회작용에서 방아쇠와 같은[23] 촉발사건을 경험하고 자신의 가치관 신념에 대한 비판적 반성이 일어나는 전환학습이 관찰된다. 인생 과정에서 혼란스러운 딜레마 상황에 직면하는 것을 시작으로 기존의 신념이나 가치관에 대한 재통합이 일어난다[24]고 하였는데 이는 진로선택 경험이 없는 북한이탈주민의 전환적 진로선택 과정을 전환학습에 대한 설명으로 가능하다. '적극적 변화 단계'는 정착지에서 감정과

노력 두 가지 모두가 새로운 정보와 이해를 도모하도록 한다[25]고 할 수 있다. 적극적인 변화를 위해 [26]에도 나타났듯이 자신의 진로에서 새로운 단계로 평생교육 혹은 직업훈련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자격증 취득을 통한 성취도가 높아지고 끊임없는 경력개발에 이어 진로성숙이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핵심범주인 '관점전환으로 새로운 진로에 도전함'을 통하여 집단적이고 평등적이 아닌 자본주의 노동시장 흑독함에 직업세계와 노동시장을 들여다보는 관점을 바꾸어야 함을 인지하게 되면서 전환학습이 일어나게 된다. 선택에 대한 능동적이고 자유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과 막연함을 잠시 느끼지만, 그것으로 부터 한편으로는 책임의 당사자로서 주체라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무엇인가를 변화시키는[27]것 즉, 경험의 정신적인 구성, 내적인 의미, 그리고 성찰로 구성되는 전환학습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프레이 리와 하버마스는 전환학습은 개인차원에서는 자기구속에서의 해방 즉, 자기를 억누르고 있던 여러 가지 부정적 정서나 소외된 감정을 자기에 대한 배려와 보살핌으로 보았다 [28]. 연구 참여자들은 대인관계에서 우선적으로 변화를 가져왔고 의사소통능력 함양, 인적 네트워크와 사회적 지지체계를 형성하여 보다 빠르게 정보를 획득하고 기존의 신념과 가치관에 대한 비판적 반성 후 자신의 삶을 재통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과정 모델은 전환국면을 가진 북한이탈주민의 진로선택 과정에서 진로준비행동 실행의 구조를 설명하여 이해를 도울 수 있었다. 진로준비행동의 전개과정을 포함하는 구체적인 학습요인이나 관계에 대하여 밝힘으로서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맞춤형 진로상담 및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뒷받침해줄 기초 자료생성에 기여했다.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맞춤형 진로교육프로그램을 설계하고자 할 때 중요하게 시사해야 할 점을 생각할 수 있다. ① 성인발달의 핵심 과정이 관점전환이며, 혼란스러운 딜레마 상황 이후 반성적 과정을 통해[29] 의미구조가 전환되는 전환학습이 중요시 된다고 평가한다. [23]에서는 관점전환 과정을 공유하는 의사소통 활동을 활발하게 할수록 전환학습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았다.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진로상담과 진로교육 프로그램은 이들에게 비판적 성찰과 정서적 학습이 일어나도록 관점전환 과정을 공유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22]에서 주장하듯이 관점전환을 통한 개인의 내·외적인 전환학습수준을 촉진을 위해 상담사나 교육가는 북

한이탈주민들이 정착초기에 겪는 '혼란스러운 딜레마' 상황과 그로부터 일어나는 '반성적 사고' 과정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전환이라는 전환학습을 도와야 한다. ② '계획된 우연기술'을 촉진할 수 있는 진로상담이나 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해야 한다. 진로상담이나 진로교육현장에서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초기 진로불안 스트레스를 대처할 수 있는 상담으로 우연기술을 촉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우연 혹은 기회에 대한[30]연구를 비롯한 직장인, 전문상담사, 대학생을 대상으로 많은 연구에서는 우연을 대처하는 기술이 진로성숙, 진로장벽, 진로의사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히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문적 측면에서 양적연구들에서 검증된 우연대처기술 영향이 근거이론 방법으로 접근한 질적 연구결과에서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진로상담 현장에서는 새로운 경험에 대한 진로와의 관계에서 사회적 배경이나 개인의 내적 특성에 따라 대처방법이 다르다는 연구결과들에 따라 급변하는 직업세계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교육이나 경험조차 부재하였던 북한이탈주민의 성공경험과 단계에 대한 초보적인 이해와 실제적 이론을 도출하였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 11명을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여 전체 북한이탈주민의 진로선택 경험을 해석하고 일반화하기 어려운 질적 연구라는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전환적 진로선택 과정에서의 상호작용과 행동반응에 대한 연속성을 발견하였고 이를 진로상담 및 진로교육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References

- [1] H. W. Song, Normative Characteristics and administrative system of labor rights in North Korea, North Korean law study, Vol.19, pp.7-34. 2018.
- [2] A Survey on the Settlement of North Korean Refugees, North-South Hana Foundation 2018, [19.9.1 citation], Source: <https://www.koreahana.or.kr>
- [3] H. K. KIM, A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Experience of Trauma Recovery among the North Korean Refugees,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pp-11, 2006.
- [4] Berry, J. W. (1997).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46(1), 5-34.
- [5] S. K. Pyun, A Study on the Social Adaptation of North Korea, Refugees to South Korea,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The Graduate School of Seoul Christian University. pp-39, 2009.
- [6] E. S. Cho, S. W. Kim, H. S. Sun, Research on developing a model of self-supporting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of North Korean defectors, Korea Vocational Competency Development Institute research report. pp-17, 2012.
- [7] Y. M. Son, "A Study on The process of Job Transition of the unemployed". Korea Career Education Association Vol.15, No.2, pp.107-122, 2002.
- [8] S. H. Kim, A Study on the Employment Policy for North Korean Migrants-Focusing on 'Encouragement Support Program' of Korean Government-, Seoul women's university, Doctoral dissertation, 2011.
- [9] H. S. Kim, A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Employment of North Korean Migrants in South Korea: With a Focus on Human Capital and Labor Market Structure Factors, Korea technology education university, Doctoral dissertation, 2009.
- [10] Y. S. Jeon, Development of career barriers inventory for female North Korean defectors, Korea technology education university, Doctoral dissertation, 2010.
- [11] S. J. Park, E. J. Oh, Vocational training experience of North Korean female refugees and policy needs, The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Vol. 31, No. 4, pp.135-152, 2012.
- [12] K. Y. Jang, B. W. Kim, "The Korean Validation Study of the Transition Guide Questionnaire Scale". Th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 10, No. 1, 399-415, 2009.
- [13] S. J. Kim, K. R. Shin,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Grounded theory Procedures and Techniques. p.295, Hanul Academy, 1996,
- [14] H. S. Cho, S. W. Jung, J. S. Kim, J. S. Kwon,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 3rd Edition, pp.192, 2016,
- [15] Y. C. Kim,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 I, Third edition, p.694, Academy Press, 2016,
- [16] S. S. Jang, Qualitative Study on Career Transition of Correctional Officer Who got a Post-retirement Job, Department of Vocationology Graduate School Kyonggi University, pp54, 2018.
- [17] Lincoln, Y. S.; Guba, E. G.(2007). Judging interpretations: But is it rigorous? trustworthiness and authenticity in naturalistic evaluation, Vol. No.114, [2007])
- [18] Griffin, C.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s and Procedures for Developing Grounded Theory (2nd ed.) by Anselm Strauss and Juliet Corbin, Vol.45 No.4 2000.
- [19] A Working-level Manual on the Settlement Support System for North Korean Refugees, North-South Hana Foundation 2018.
- [20] A Study on the Process of North Korean defector

- Entrepreneurs' Business Success, Ewha Women University.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en University, 2018
- [21] Mitchell , K. E., Levin, A. S., & Krumboltz, J. D. (1999) Planned happenstance: Constructing unexpected career opportunities.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77(2), 115-123.
- [22] Y. J. Sin, *Theory and Methods of Lifelong Education*: seoul publisher, 2004, P. 394
- [23] Brookfield, S.(1987). *Developing critical thinkers*. San Francisco: Jossey-Bass.
- [24] Mezirow, J. (2000). Learning to think like an adult: Core concepts of transformation theory. In J. Mezirow & Associates, *Learning as transformation: Critical perspectives on a theory in progress* (pp. 3-3). San Francisco: Jossey-Bass.
- [25] J. H. Jang, S. I. Na, Variables Associated with Transformative Learning of Job Losers, *Resource development of agricultural education*, Vol. 40 No.3, pp.173-198, 2008.
- [26] S. H. Ju, Y. K. Joo, Analyzing Career Change Recognition Process of Career Cut-off Women: Grounded Theory Approach, *Journal of Lifelong Learning Society* Vol.13 No.3, pp.33-56. 2017
- [27] Y. H. Gi, S. H. Hong, Y. J. Cho, S. J. Kim, *Learning in adulthood : a comprehensive guide*, Academy Press, p.450.
- [28] Y. Y. Cho, A grounded theory study on the transformational learning experiences of the middle-aged, Major in Social Welfare Yemyung Graduate University, 2017.
- [29] Mezirow, J. (1991). *Transformation dimensions of adult learning*. San Francisco: Jossey-Bass.
- [30] E. Y. Son, The Role of chance and Happenstance in the Process of Career Choic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 10 No. 1, PP.385-397, 2009.

김혜영(Hye-Young Kim)

[정회원]



- 2019년 12월 :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직업학박사 과정)
- 2016년 7월 ~ 현재 : 남북하나재단 취업전문상담사

<관심분야>

취업, 진로, NCS, 직업사회학